수자원과 인류 동행의 길

기고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우리는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 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길과 삶이 담겨 있는지 떠올리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한 물은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와 인내 위에 흐르고 있다. 바로 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오랜시간 동안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헌신 덕분이다.

상수원 주변 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 제약을 받아왔다.

논밭을 일구는 일부터 집을 짓는 일, 가게를 여는 일, 작은 농작물 하나를 재배하는 일까지 여러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이는 단지 불편함을 넘어 삶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묵묵히 그런 제약을 받아들이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왔다.

깨끗한 물은 이들의 조용한 희생과 배려로 가능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들의 존재를 잊곤 한다.

이제는 '희생'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다.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의 이면에 있는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응답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남의 8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에 걸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해 2003년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지원액은 약 3010억원에 달하며 2025년도에는 약 1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과의 함께하는 진정한 상생'에 있다. 수질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표 아래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이제는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하다. 이들은 환경을 지켜온 든든한 이웃이자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다. 상생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공존의 실천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물을 지켜온 사람들과 함께 흐를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는 완성된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연대해야 할 소중한 삶으로 바라봐야 한다.

맑은 물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조용한 헌신 위에 놓여 있다. 이제는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따뜻한 감사와 함께 실질적인 응답으로 그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돗물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 곧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

발언대

박재영
무안경찰 경무계장

오는 6월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이 저마다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선거운동의 양상은 과거처럼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던 방식에서벗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SNS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간접 후원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달아 행정안전부에 적발돼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이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

기고

문기환 광주시 무등산생태팀장

무등산 자락 '평촌마을' 지오빌리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 레스보스섬 세계지질공원(Lesvos Island UNESCO Global Geopark), 노르웨이 로갈란주 마그마 세계지질공원(Magma UNESCO Global Geopark), 중국 간쑤성 장예 세계지질공원(Zhangye UNESCO Global Geopark), 대한민국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까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엇이 공통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만 바로 지질공원 내 '지오빌리지'가 지정 돼 있다는 점이다.

'지오빌리지(Geo-Village)'는세계지질공원내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을 말한다.

지질공원과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생태·문화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질공원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오빌리지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Global Geopark Network)가 출범하면서 개념이 발전했다. 처음에는 '지질공원내 마을' 정도의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질과 문화를 연결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이라는 방향으로 확장 됐다. 지오빌리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 보전과 발전을 함께 이루는 곳으로 진화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3일 평촌마을을 지오빌리지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청풍마을을 지오빌리지로 지정한 지 7년 만에 광주에서 2번째 지오빌리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광주의 동북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평촌마을은 동림, 우성, 담안, 닭뫼라는 4개 마을로 형성된 아담하고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 됐고, 2024년 9월에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됐다. 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국립공원 마을로도 지정돼 있다.

무등산 북쪽 원효계곡은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촌마을을 가로질러 풍암천을 통해 흐르는데 이곳에는 도심에서 이미 자취가 사라진 반딧불이와 무등산 국립공원 깃대종인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이곳 논들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환경을 지키는 농사를 짓고 있어서 소금쟁이, 물방개 등 다양한 수생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특히 화석생물이라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는 맹금류인 참매가 비행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무등산과 마을주변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귀하게 여겨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 보고인 평촌마을이 광주시와 지오빌리지 협약을 통해 명성을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리고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등산이라는 세계적 지질유산과의 연계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오빌리지는 단순히 예쁜 마을이 아니라 지질유산과 지역문화, 주민참여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임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